

향(香)과 헤이안왕조(平安王朝)*

김 영**

(e-mail: youngkim@dhu.ac.kr)

目次

1. 머리말
 2. 향과 겐지이야기
 3. 향과 헤이안왕조
 4.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에서 초기 향 문화는 왕과 귀족 등 상류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고대 일본의 향 문화는 향기를 옷에 배게 하는 훈의(薰衣)에서 비롯된다. 옷을 펴서 걸친 다음 그 아래 향을 피워 향기를 배도록 한 뒤 입을 방식이다. 특히 화려한 귀족문화가 꽃을 피운 10세기 이후 헤이안왕조는 종교적 의미로 향을 공향(恭香)하는 유행과 함께 훈물(薰物)을 유희의 세계와 접목시켰다. 이것을 ‘다키모노아와세’(薰物合せ)라고 하는 데 이러한 향 문화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일본의 유일하고 독특한 전통이다. 이러한 향 문화는 헤이안시대 궁정 소설이며 세계 최초의 장편소설인 겐지이야기(源氏物語)나 최초의 수필집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잘 나타난다. 고대 일본 여성들이 훈의(薰衣)를 즐겨 입는 패션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매개로 삼았음¹⁾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의 감상과 해석에서 신체적 묘사 및 인간의 감각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구한의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일본문화학, 일본문학 전공

1) 김영(2015) 「일본 고대의 향도와 향문화 - 향의 문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5호, pp.117-134

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²⁾. 예를 들면, 일본 고대 사회의 중요한 회화자료인 에마키(繪卷)에서 당시의 여성들은 화려한 의상을 휘감고 얼굴과 손끝, 머리칼 부분만을 살짝 노출시킨 모습으로 등장한다³⁾. 에마키는 1차적으로는 색채와 디자인에 지배된 ‘시각’적 미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후각’과 ‘촉각’이라는 감추어진 의식의 흐름이 있다.

가와조에(河添房江)는 신체론에서 한 걸음 확장된 ‘상징으로서의 신체’에 주목한다⁴⁾.

고대문학에서 신체에 관련된 논술의 축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체론의 언설에서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보일까. 신체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연장으로서 의상과 화장, 調度와 주거 공간, 회화와 책 등 다양한 문화현상, 그 역사성,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이라는 오감에 관련된 현상 등 <상징으로서의 신체>야말로 바로 향후 신체론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물론 가와조에 논리의 전거는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퐁티에서 연유한다. ‘몸의 현상학’으로 알려진 퐁티에 의해, 비로소 의식이 바라보던 외부 대상에 불과하던 <신체>가 우리 의식적 활동 자체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 권좌, 즉 ‘몸’의 불가결한 근본성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⁶⁾.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신체의 확장에 해당하는, 화장과 조도(調度)와의 복합체라 할 수 있는 일본 고대의 ‘후각’의 미의식, 즉 향 문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 후각표현에 해당하며 극히 개인적 개성의 발현(發顯)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좋은 향기와 악취의 구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후각표현에 대한 글쓰기 또한 문화와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과연 헤이안시대 헤안쿄(平安京)에 감돌고 있던 향기는 어떤 것이며 당시 귀족들은 어떤 향기를 맡고 생활하고 있었을까, 그곳에 일본 왕조시대의 문화와 귀족들의 생활문화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라쿠(享樂眞帆子)는 헤안쿄는 거리의 심한 악취와 귀족 저택의 향기(芳香)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헤이안시대의 향 문화의 콘트라스트(대조)적 감각을 주장한다⁷⁾. 헤이안 귀족들은 도시

2) 이러한 문학과 신체론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프랑스의 철학·문화인류학·사회학 분야에서 부상했는데, ‘행동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며 사유 역시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식의 궁극적 완성 은 몸의 지각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3) 김영(2013)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헤이안시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84호, pp.113-130

4) 河添房江(1994) 「最近の物語研究から-王権論から身体論へ」 「日本文学」/河添(1998) 『性と文化の源氏物語』 筑摩書房, p.129

6)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의 철학은 이른바 ‘몸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몸철학’을 가장 정교하게 잘 제시했다.

공간의 악취를 차단하고 자신의 생활공간의 방향(芳香)을 유지하기 위해 향을 향유하고 있었다. 여기엔 귀족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대비적 특이성까지도 연결된다. 헤이안 귀족은 향을 피워 실내 공간을 좋은 향으로 가득 채우고 훌륭한 향이 배인 의복을 착용해 주위의 악취를 차단함으로써 귀족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향도(香道)가 가장 정교하게 발전해 전승되어 왔고 향도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향도와 향료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 저술되어 왔고 향도 유파도 약 100여개에 이른다. 중국에서 불교와 함께 전래된 향 문화가 일본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향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헤이안 궁중 귀족들은 1년 365일 향을 향유하는 화려한 생활을 영위했다. 향은 자기표현의 정점이며 향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는 시대였다.

현재까지 헤이안시대의 향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겐지이야기 우지주조(宇治十帖)에 집중되어 왔는데, 그것은 등장인물인 가오루(薰)와 니오미야(匂宮) 때문이다.

이에 관한 연구로 요시무라 아키코(吉村晶子)는 가오루(薰)의 체취가 그의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신성성(聖性)을 각인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그의 체취가 종교심의 상징이 아닌 애욕의 표출이라는 논고도 있는데 스케가와 고이치로(助川孝逸郎)⁸⁾는 ‘<향기>에 내재된 중층의 의미 구조 속에 “가오루의 애욕의 상징”이라는 영역을 인지해도 착오는 없을 것이다’고 한다.

미타무라 마사코(三田村雅子) 또한 ‘안개에 젖어 하치미야의 공주들을 엿보며 마음이 동요한 뒤, 가오루의 이상하리마치 강조된 향기는 평소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억제하고 여성에 대한 무관심을 표방해 온 가오루의 표면적 진실함과 상반된, 참을 수 없는 정념과 충동의 노출임에 틀림없다⁹⁾’고 서술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인물상을 표현할 때, <향기>가 종교적 신앙심 또는 애욕의 상징으로 표출되는 등 인물들 간의 중요한 매개체 혹은 미디어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헤이안 사회에서 생산되고 꽃을 피운 향의 미의식과 당시 정형화된 미의식에서 비롯된 향(香)의 규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향의 생활사에 주목해 모노가타리 내부에서 실제 귀족들이 향을 제조하고 향유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일본 왕조시대의 향 문화사의 일면을 엿보고자 한다.

7) 享樂眞帆子 (2008) 「平安京貴族文化とにおい—芳香と惡臭の權力構造—」 (三田村雅子編『薰りの源氏物語』翰林書房, pp.68-85)

8) 助川孝逸郎 (2008) 「<見えるかおり>/<匂うかをり>—薰の<香り>が表象するもの—」 (三田村雅子編『薰りの源氏物語』翰林書房, pp.150-172)、「薰の<かをり>について—愛欲とのかかわりを中心に」『中古文學論攷』13, 早稻田大學大學院中古文學研究會, 1992年

9) 三田村雅子編(1997) 『濡れる身体の宇治—水の感覺・水の風景』『源氏研究』翰林書房, pp.103

2. 향과 겐지이야기

2.1 향의 제조과정

향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겐지이야기(源氏物語)의 우메가에(梅枝) 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귀족들은 향을 즐길 뿐 아니라 향을 직접 제조하였음을 나타낸다. 우메가에(梅枝) 권에는 향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 겐지와 4명의 여성들의 향 제조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완성된 향을 넣은 향 항아리(香壺)와 향함(香箱)에 이르기까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재료와 세밀한 디자인(意匠)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들이 제조한 향의 냄새를 맡고 그 질의 우열을 판정하는 자(判者)로서 겐지의 남동생인 호타루노미야가 등장한다.

겐지는 자신과 아카시노우에(明石の上) 사이에서 태어난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の姫君)의 11살 성인식(裳着)을 맞이하여 로쿠조인(六條院)에 거처하는 여성들에게 ‘향경합(薰物合せ)’을 제안한다.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の姫君)는 성인식 후에는 정식으로 황태자비가 되어 동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지는데 겐지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귀중한 향료를 풍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향 제조에 전력을 기울인다. 향 제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の姫君)를 10년간 양육한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와 겐지의 사촌인 아사가오(朝顔の君), 겐지가 마음으로 신뢰하는 여인 하나치루사토(花散里の君)와 아카시노 히메기미의 생모인 아카시노우에(明石の上) 이상 4명이다. 겐지는 위 4명의 여인들에게 향 제조를 명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정월 말이다.

(1)正月のつごもり成れば、公私のどやかなるころほひに、薰物合はせたまふ。大貳の奉れる香ども御覽ずるに、なほいにしへのには劣りてやあらむと思して、二条院の御倉開けさせたまひて、唐の物ども取り渡させたまひて、御覽じくらぶるに、「錦、綾なども、なほ古き物こそなつかしうこまやかにはありけれ」とて、近き御しつらひのものの覆ひ、敷物、褥などの端どもに、故院の御世のはじめつ方、高麗人の奉れりける綾、緋金錦どもなど、今の世の物に似ず、なほさまざま御覽じ当てつつせさせたまひて、このたびの綾、羅などは人々に賜す。(2)香どもは、昔今の取り並べさせたまひて、御方々に配り奉らせたまふ。「二種づつ合はせさせたまへ」と聞こえさせたまへり。贈物、上達部の禄など、世になきさまに、内にも外にも事しげく営みたまふに添へて、方々に選りととのへて、鉄臼の音耳かしがましきころなり。

(1)에서 겐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향의 원료를 직접 선택해 여인들에게 나누어준다. 좋은 향이 들어오면 전해달라고 당시 대륙무역의 창구였던 다자이후(大宰府)에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손에 들어온 것은 예전 것과 비교하면 모두 질이 뒤떨어지

는 것이었다. 그래서 니조노인(二條の院) 창고를 열고 창고 안에서 당나라 때 전해진 훌륭한 향목(香木)을 선택한다. (2)에서 향의 원료를 여인들에게 전달한 겐지는 각각 2종류씩 만들도록 한다. 향의 재료가 전달된 후 각각의 여인들은 향목을 절구로 분쇄하는 분말 만들기 작업부터 시작한다.

(3)大臣は、寢殿に離れおはしまして、承和の御いしめの二つの方を、いかでか御耳には伝へたまひけん、心にしめて合はせたまふ。上は、東の中の放出に、御しつらひことに深うしなさせたまひて、八条の式部卿の御方を伝へて、かたみこいどみ合はせたまふほど、いみじう秘したまへば、「匂ひの深さ浅さも、勝負の定めあるべし」と大臣のたまふ。人の御親げなき御争ひ心なり。いづ方にも、御前にさふらふ人あまたならず。御調度どもも、そらのきよらを尽くしたまへる中にも、香壺の御箱どものやう、壺の姿、火取の心ばへも目馴れぬさまに、いまめかしう、様変へさせたまへるに、所どころの心を尽くしたまへらむ匂ひどものすぐれたらむどもを、嗅ぎ合はせて入れんと思すなりけり。 10)

(3)에서는 닌묘천황(仁明天皇)의 향 조제 비법(承和の御いしめの二つの方)과 모토야스친왕(本康親王, 닌묘천황의 7번째 왕자로 천황의 향제조법을 전수받았다고 함)의 비법이 소개되고 있다. 훈향의 종류와 명칭에 관해서는 『薰集類抄』에 그 제작자와 명칭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2가지 향은 구로보(黒方)와 지쥬(侍従)라고 한다¹¹⁾. 모토야스친왕(本康親王)의 향 제조법에 관해서는 「沈八兩二分、麝香一分三朱、甲香三兩二分、甘松一分、白檀二分三朱、丁子二兩三分、麝香二分、薰陸一分」라고 있고 또 다른 설은 「沈・丁子・甲香・甘松を合せたもの一種と、それらに熟鬱金をあわせたもの」라고 2종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구로보(黒方)와 지쥬(侍従)의 제조 비법은 남자에게는 전수하지 않았다(不伝男子)고 한다.

당시 향 전수는 비전(秘傳)으로 비밀리에 전수되었으며 훈향의 조제비법 또한 일부 정해진 사람들만 그 비법을 알고 있었다. 만드는 자에 따라 향의 깊이가 달랐으며 그에 의해 향의 품질이 정해지는 등 은밀하면서도 세밀한 향 제조작업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여성에게만 전수되던 향 제조 비법을 남성인 겐지가 알아내 향을 만들어 냈던 것도 무라사키시키키부의 세밀한 고안과 수법이 함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닌묘천황의 비법을 알아낸 것도 겐지, 황족만의 특권이며 겐지와 황권의 특별한 관계

10) 겐지는 홀로 침전에서 떨어져 닌묘천황(仁明天皇)의 향 조제 비법 2가지를 어떻게 전수받았는지 열심히 조합하고 계신다. 무라사키노우에는 자신의 거처인 동쪽 거처(東の對) 母屋에 은밀하게 거처를 마련해 모토야스친왕(本康親王, 닌묘천황의 7번째 왕자로 천황의 향제조법을 전수받았다고 함)의 비법을 전수받아 겐지대신과 서로 경쟁하며 조합하는데 비밀스럽게 하고 계시므로 ‘훈물의 향이 깊고 얇은 것도 승패를 정해야 한다’고 겐지는 말씀하신다. 승부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두 분 모두 옆에 두는 노보를 물리고 은밀하게 향을 제조하신다. 초도 몰품도 화려하게 준비하는데 특히 향 향아리 모양, 형태는 당세풍으로 지금까지와는 취향을 달리해 만드시는데 여기에 온 정성을 담아 조합하고 계신 훌륭한 향을 냄새로 분별한 후 넣으려고 생각하신다.

11)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源氏物語3』 p.488注참조

를 연상시킨다. 무라사키노우에 또한 모토야스친왕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표현은 무라사키노우에가 보통의 귀족이 아닌, 최고의 권력층인 황족과 각별한 관계였으며 그 비법으로 향을 제조했다는 사실은 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제적 재력과 문화적 지성 및 교양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二月の十日、雨すこし降りて、御前近き紅梅盛りに色も香も似るものなきほどに、兵部卿宮渡りたまへ。(p.405)

(5)このついでに、御方々の合はせたまふども、おのおの御使して、「この夕暮のしめりに試みん」と聞こえたまへれば、さまさまをかしうしなして奉れたまへり。(p.408)

(4)는 2월 10일경, 비가 조금 내려 습기가 남아있는 저녁 무렵에 아사가오(朝顔の君)가 가장 먼저 향을 가져오는 장면이다. 건조한 날씨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어 축축한 날씨에 향을 피우는 것이 더욱 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사실을 이미 무라사키시키키부는 숙지하고 있었다. (5)또한 겐지가 로쿠조인의 여성들에게 훈향은 비가 내려 공기가 습한 저녁 무렵이 좋으니 어서 제조한 훈향을 제출하라 분부하는 장면이다.

(6)「これ分かせたまへ。誰にか見せん」と聞こえたまひて、御火取ども召して試みさせたまふ。「知る人にもあらずや」と卑下したまへど、言ひ知らぬ匂ひどもの進み、後れたる、香一種などが、いささかの咎をわきて、あながちに劣りまじりのけぢめをおきたまふ。

(6)에서 겐지는 호타루노미야(螢宮)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향의 좋고 나쁨을 판정해 달라 부탁한다. 호타루노미야(螢宮)는 겸손하게 ‘나도 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이라고 말하지만 향이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등의 조합 재료의 세밀한 결점까지 그 향을 판별해 훌륭한 훈향의 우열을 가린다.

(7)かのわか御二種のは、今ぞ取うさせたまふ。右近の陣の御溝水(みかわみず)の(ま)りになずらへて、西の渡殿の下より出づる、汀近く埋ませたまへるを、惟光の宰相の子の兵衛尉堀りてまゐれり。

(7)에서 겐지는 자신이 만든 2종류의 향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右近衛(궁중경비를 맡아본 관아)의 정원을 통과하는 도랑 근처에 묻어 두는 관습에 따라 서쪽 복도 아래에 흐르는 연못가에 묻어 두신 것을 고레미즈 재상 아들인 兵衛尉가 땅속의 것을 파서 가져 왔다. 습기가 있는 땅 속에 묻어두면 깊은 향이 난다는 관례에 따라 겐지는 자신이 제조한 향을 땅 속에 며칠간 묻어두었다가 파내어서 가져 오게 한다. 향 제조과정의 세밀하고 기술되어 당대 향 만들기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8) 「いと苦しき判者にも当たりてはべるかな。いとけふたしや」と悩みたまふ。同じこそは、いづくにも散りつつひろがるべかめるを、人々の心々に合はせたまへる、深さ浅さを嗅ぎ合はせたまへるに、いと興あること多かり。

호타루노미야(螢宮)는 어려운 판정자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괴롭다고 말하며 고민한다. 훈향은 동일한 제조법이 전승되어 왔지만 향에는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므로 그 향의 깊이가 달라 정취가 있다고 기술한다. 위의 (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향 제조는 은밀하게 비전되던 비법이었지만 만드는 이에 따라 전혀 그 향이 달리 나오는 고도의 기술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9)さらにいづれともなき中に、齋院の御黒方、さいへども、心にくく静やかなる匂ひことなり。侍従は、大臣の御は、すぐれてなまめかしうなつかしき香なりと定めたまふ¹²⁾。(중략)對の上の御は、三種ある中に、梅花はなやかかいまめかしう、すこしはやく心しつらひを添へて、めづらしき薫り加はれり。「このごろの風なたぐへんには、さらにこれにまさる匂ひあらじ」とめでたまふ。

다이노우에(對の上, 무라사키노우에)가 조합하신 향은 3종류(黒方, 侍従, 梅花) 있는데, 매화향은 화려하고 신선한 당세풍의 느낌이며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훌륭한 향이다. 호타루노미야는 ‘오늘 같은 봄날 봄바람에 피우기에 가장 어울리는 향’이라고 칭찬하신다. 역시 무라사키노우에는 당대 최고 교양의 여성답게 가장 많은 종류의 향을 만드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성의 척도임을 암시한다.

(10)夏の御方には、人々の香心々にいどみたまふなる中に、數々にも立ち出でずやと、煙をさへ思ひ消えたまへる御心にて、ただ荷葉を一種合はせたまへり。さま変り、しめやかなる香して、あはれになつかし。

나쓰노온가타(夏の御方, 하나치루사토)는 다른 분들이 어떤 훈향이 좋을까 고심하며 경쟁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여러 가지 향을 선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단 한 가지 향(荷葉)만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향은 독특한 취향의, 고요하고 차분한 향기로 애절한 느낌이 든다고 기술한다. 하나치루사토(花散里)는 자신의 신분과 교양 정도에 맞게 한 가지 향만을 제조하는데 그 향기가 여름의 향기이며 독특한 취향의, 고요하고 차분한 향기로 애절한 느낌이 든다. 향의 양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자신의 개성이 묻어나는 향 제조를 통해 <향 = 하나치루사토>라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12)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가운데 아사가오가 만든 구로보는 겸손하게 말해도 역시 정취가 깊고 안정된 향이 나는 것이 정말 각별하다. 겐지가 만든, 가을 향이라 일컬어지는 지주(侍従)는 우아하고 그리운 향이라 판정하신다.

(11)冬の御方にも、時々によれる匂ひの定まれるに、消たれんもあいなしと思して、薰衣香の方のすぐれたるは、前の朱雀院のをつさせたまひて、公忠朝臣の、ことに選び仕まつれりし百歩の方など思ひえて、世に似ずなまめかしさをとり集めたる、心おきてすぐれたりと、いづれをも無徳ならず定めたまふを、「心ぎたなき判者なめり」と聞こえたまふ¹³⁾。

마지막으로 아카시노기미는 향 제조의 피날레를 훌륭하게 장식하는데 ‘훈의향(薰衣香)’을 사용한다. 그리고 당시 헤이안시대는 각 계절에 어울리는 향이 정해져 있었다. 구로보는 겨울, 지주는 가을, 매화는 봄, 가요는 여름이라는 식으로 사계에 맞는 향이 결정되어 있어 상식처럼 통용된 것 같다. 그래서 아카시노기미는 관습 그대로 향을 만들면 무라사키노우에나 아사가오 등 다른 여성에게 질 것은 뻔하다 생각해 계절에 상관없이 옷에 향을 배게 하는 훈의향을 선택했을 것이다.

2.2 향과 인물상

겐지이야기 우메가에 권에서 나타난 향 제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아카시노 히메기미를 위해 겐지와 로쿠조인 여성들이 만든 향은 성인식 이후 황태자비가 되어 궁으로 들어가게 될 공주를 위한 최고의 축하선물이라 할 수 있다. 아카시노 히메기미를 생각하며 아카시노 히메기미 단 한사람만을 위한 향을 제조해 그 향의 우열을 가리는 관정자까지 정하는 향 우열대결(薰物合せ)은 장래 황후가 될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무라사키 시키부가 생각한 최고의 찬사라 할 수 있다.

둘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의 거처인 로쿠조인(六條院)에 사는 여성들에게 향을 제조하라 했을 때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며 각각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향을 만드는데 역시 사계에 맞는 향을 선택하고 제조한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제로 하여 향료를 계절에 맞게 조합하는 것은 일본 왕조세계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봄의 궁궐에 살며 봄의 공주로 일컬어지던 무라사키노우에는 매화향(梅花)을 제조했고 여름 공주인 하나치루사토는 대표적인 여름 향기인가요(荷葉)를, 겐지는 가을

13) 冬の御方(明石の君)는 계절마다 어울리는 향이 정해져 있으므로(구로보는 겨울, 지주는 가을, 매화는 봄, 가요는 여름), 정해진 형식 그대로 만들면 다른 분들에게 질 것임에 뻔하다 생각해 취향을 달리해 독특한 훈의향(薰衣香)을 만드셨다. 본디 훌륭한 훈의향은 우다천황의 조제법을 지금 스자쿠천황이 계승받아 긴타다(源公忠朝臣)가 음미하며 만들어 올린 ‘하쿠부의 호(百歩の方: 훈의향의 일종으로 백보 떨어진 곳까지 향기가 난다는 의미)’라고 전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호타루노미야는 아카시노기미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향을 만드셨다고 판정하므로, 겐지는 이렇게 모든 향의 장점만을 언급하는 호타루노미야에 대해 ‘정말 공정치 못한 관정자라고 하신다.

향의 대표적인 지주(侍從)를 제조한다.

셋째, 겐지, 무라사키노우에, 아사가오 3인이 공통적으로 만든 향은 구로보(黒方)이다. 역시 당대 최고의 향이라 평가받는 만큼 당대 최고의 풍류인이며 교양인인 이들은 구로보 제조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성과 심미안을 평가받길 원했을 것이다.

아사가오(朝顔の君)는 청색 루리(紺瑠璃)와 백색 루리(白瑠璃) 향아리에 담은 2개의 향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の姫君)의 성인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로보(黒方)이다. 여기서 주안점은 구로보가 아닌 향 향아리(香壺)에 있다. 향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을 담은 향아리까지 치밀하게 고안한 아사가오의 섬세한 기법이 돋보이는데 한 개는 매화나무(梅の枝)를 장식하고 또 다른 한 개는 소나무(五葉の松)가지로 장식되어 있다.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는 대표적인 봄의 향기로 분류되는 매화향(梅花)을 비롯해 3종류의 향을 제조한다. 무라사키노우에가 봄의 거처에 머물고 있는 만큼 봄의 대표적인 향이라 일컬어지는 매화향을 제조하고 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에 3종류의 향을 만들었다는 것은 4인의 여성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향에 대한 심미안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치루사토(花散里)는 단 1종류의 향만을 만든다. 여름의 향기로 대표되는 가요(荷葉)인데 이 향은 여름 거처(夏の町)에 머물고 있는 하나치루사토(花散里)의 캐릭터를 함축하고 있다.

겐지 또한 자신의 딸을 위해 구로보 제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이 비법은 여성에게만 전수된 비법이므로 본디 남성인 겐지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겐지는 천황이 여성에게만 전수하라는 비법의 정보를 알아내 이 금기를 깨고 구로보 제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겐지야말로 이 금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천황에 버금가는 최고의 권력과 교양을 갖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라사키시키키부는 누가 어떤 향을 제조하고 몇 종류 만들었는가 등에 의해 작중인물들의 캐릭터와 이 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위치, 나아가 인물들의 교양과 지성을 조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넷째, 우메가에 권의 향의 우열가리기에서 우선적으로 판정을 받는 것은 구로보와 지쥬이다. 이 두 종류의 향은 방향(芳香)뿐 아니라 향의 레벨이나 격식 또한 높게 평가받았던 것 같다¹⁴⁾. 이들 향을 제조한 것은 황족신분의 아사가오와 황족신분에 가까운 겐지였는데 향의 계절감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신분과 위치에 맞는 향의 조합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4) 다나카 게이코는 다음과 같은 논고에서 이미 '구로보'와 '지쥬'의 위상에 관해, 훈물(薰物)과 등장인물과의 격식과의 균형이 고려된 결과라고 논한 바 있다. 田中圭子(2008)「紫上の薰物と伝承」(三田村雅子編(2008)『薰りの源氏物語』翰林書房, p.135)

3. 향과 헤이안 왕조

위의 겐지이야기에 나타난 기술을 중심으로 일본 고대의 향 제조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겐지는 4명의 여성들에게 향 원료를 전해주며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の姫君)의 성인식을 축하하는 향을 2종류씩 만들라 명한다. 명을 내리고 향을 피우기까지 정확하게 1월말부터 2월10일까지 열흘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당시 향 제조에 걸리는 시간과 향제조 순서를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즉, 재료를 받은 후 바로 어떤 향을 만들 것인가 옛 비법을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제조할 향이 결정되면 우선 향 원료를 분말 형으로 만든다. 그 후 벌꿀이나 감미료 등으로 섞어 반죽해 환약의 형태로 만든다.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후 습기 차고 눅눅한 땅 속에 며칠간 묻어 숙성시킨다. 이러한 땅 속에서의 숙성을 통해 깊은 향이 우러난다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통해 헤이안시대 향 제조의 실상을 유추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향 제조를 명한 것은 정월 말이고 향을 피운 것은 2월 초순인데, 2월 10일은 완성된 향을 피우기엔 가장 적합한 날씨였다. 비가 약간 내려 습기 찬 실내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가장 잘 연기가 난다는 것이다.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다. 예를 들면 190단(心にくきもの)¹⁵⁾에는

薰物の香、いと心にくし。五月の長雨のころ、上の御局の小戸の簾に齋信の中將の寄りゐたまへりし香は、まことにをかしようありかな。その物の香ともおぼえず。おほかた雨にもしめりて、艶なるけきのめづらしげなき事なれど、いかでか言はではあらむ。またの日まで御簾にしみかへりたりしを、若き人などの世に知らず思へる、ことわりなりや¹⁶⁾。

당대의 재인(才人)이며 높은 교양의 소유자였던 다다노부(齋信の中將)가 중궁의 거처인 고키덴(弘徽殿)의 작은 문의 발(御簾)에 기대 앉아있었던 곳의 향기를 묘사하는데, 그 훌륭한 향기는 어떤 특정한 향기는 아니었지만 5월 장맛비가 내린 뒤의 눅눅한 공기에는 더욱 그 정취를 더한다고 묘사한다. 이처럼 향은 습기가 많을수록 향기를 잘 내 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인 세쇼나곤은 예민한 관찰감각을 통해 향을 후각적으로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무라사키시키키부는 이러한 향 제조와 향 피우기, 그리고 어떤 향이 좋고 어떤

15) 松尾聰 (1997)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枕草子』小學館、p. 332

16) 훈물의 향은 정말 정취가 있다. 5월 장마 무렵 중궁이 계신 고키덴(弘徽殿)의 작은 문의 발에 다다노부가 기대 앉아있었던 곳의 향취가 정말 훌륭했다. 어떤 특정한 향기는 아니었는데 비가 온 뒤의 눅눅한 공기엔 향기가 더욱 그 향을 발하는 정취는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풍류였다. 다음날 까지 그 향기가 발에 스며들어 향이 나는 것을 짙은 뇨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향이 떨어지는지 향의 우열판정까지 향에 관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당대 귀족들은 향 제조가 교양인의 필수였으며 이러한 향은 당대 교양인들의 교양과 감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훈의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헤이안시대 일본인들은 의복에 향을 옮기기 위해 후세고(伏籠)를 사용했다. 히토리(火取)라고 불리는 일종의 향로에 향을 피우고 큰 대나무 소쿠리 같은 통을 향로에 뒤집어씌운 모양이다. 이 위에 의복을 펼쳐 향을 스며들게 한다. 이처럼 의복에 향을 스미게 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었으며 남성귀족들도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필수 교양의 한 가지로 훈의향을 사용했다.

헤이안 귀족의 남녀를 불문하고 의류에 자신의 개성이 담긴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훈의향의 관습은 꽤 오랫동안 헤이안 사회에서 지속되었던 것 같다. 겐지이야기의 마키바시라(眞木柱) 권에는

御火取召して、いよいよたきめさせてまつりたまふ。(中略)なほ装束したまひて、小さき火取とり寄せて、袖に引き入れてしめつたまへり。なつかしきほどに萎えたる御装束に、容貌も、かの並びなき御光にこそ圧さるれど、いとあざやかに男々しきましてただ人と見えず、心恥づかしげなり¹⁷⁾。

여기에는 본처인 기타노가타(北の方)가 세련되지 못한 히게쿠로 다이쇼(髭黒大將)인 남편의 의복에 훈향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훈향한 의복을 입은 히게쿠로 다이쇼는 남자다운 풍채로 변모하여 젊은 애인 다마가즈라(玉鬘)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출발을 서두르는 모습에 슬퍼하며 울분을 참던 기타노가타(北の方)는 끝내 참지 못하고 후세고 밑에 있던 향로를 남편의 등에 던져 버린다는 내용이다.

헤이안 귀족들은 항상 신변 가까이 향과 훈향 기구를 두고 능숙하게 고귀한 향을 사용했다. 당시 훈향은 남자의 필수교양이었으며 주로 남자의 의복을 훈향하는 것은 집안 본처 여성의 몫이었다. 애인의 거처에 드나들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인내하며 남편의 의복에 향을 입히는 모습이 여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와카무라사키(若紫) 권에는

そらだきもの心にくくかをり出で、名香の香など匂ひ満ちたるに、君の御追風いとことなれば、内の人々も心づかひすべかめり¹⁸⁾。

위의 짧은 문장 안에 3가지 향이 등장해 주목을 끈다. 그것은 다키모노(たきもの)와 묘고(名香), 오이카제(追風)인데 다키모노는 조합한 향을 연소시켜 실내 공기를 바꾸는

17)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源氏物語3』 p.364

18) 練香를 훈향한 향기가 어디선지도 모르게 실내에 가득 차고 불전에 봉헌하는 향기가 가득 차 있는데다가 겐지의 의복에 밴 향기도 각별하므로 안에 있던 여인들도 무언인가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阿部秋生外 (1996) 전제서 『源氏物語1』 p.211

것이고 묘고는 불전에 피우는 향을 말한다. 오이카제는 의복에 훈향한 향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향내를 풍기는 것이다. 고대 헤이안 귀족들이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후각에 예민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향을 통해 향락의 극치를 구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쿠라노소시(『枕草子』215段)에서는 훈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よくたきしめたる薫物の、昨日、一昨日、今日などは忘れたるに、引きあげたるに、煙の残りたるは、ただ今の香よりもめでたし」(『枕草子』215段) 19)

향이 잘 배인 옷을 며칠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옷에 남아있던 여향(餘香)이 오히려 풍류가 있다고 찬미한다. 잊고 있었던 희미한 향기로부터 과거가 일순 회상, 돌이켜지는 데, 그러한 향기가 지금 막 피운 향보다 정취가 있다는 것이다. 세쇼나곤은 짙은 향보다는 은은하고 희미한 향을 즐겼는데, 다른 장단에도 이러한 감각이 돋보인다. 예를 들면,

「心ときめきするもの(中略)よき薫物たきて一人臥したる。唐鏡のすこし暗き、見たる。よき男の、車とどめて、案内し問はせたる。頭洗ひ化粧じて、香ばしうしみたる衣など着たる」(『枕草子』27段20)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머리를 감고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세련된 향이 잘 스민 옷을 입고 있는 것(頭洗ひ化粧じて、香ばしうしみたる衣など着たる)이다. 훈향한 의복 외에도 멋진 향을 피우고 혼자 누워(よき薫物たきて一人臥したる)방안에 그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후각으로 느끼는 것 또한 당시 헤이안 귀족들의 도락(道樂)적인 일상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당시 향은 일부 특권계층에 국한된, 고위 귀족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거의 수입에 의존했던 향목은 경제력 있는 천황과 귀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고 그들은 최고의 교양과 지성의 표현으로 향을 일상생활에 도입했던 것이다.

3. 맺음말

본 논문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후각코드’에 주목하여 당시 고대 ‘헤이안왕조’와 ‘향’이라는 시각에서 일본 왕조미(王朝美)의 한 전형(典型)을 들여다보고

19) 松尾聰 (1997) 전계서, p. 351

20) 松尾聰 (1997) 전계서, p. 69

자 했다. 고대 일본 사회에서 생산되고 정형화된 후각-향기의 미의식과 당시 정형화된 미의식에서 비롯된 향(香)의 규범성,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후각미(嗅覺美)에서 당대 향 문화의 실상을 모색해 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역사가·인류학자·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후각을 배제하고 시각과 청각에만 관심을 집중해 오면서 감각에 대한 편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이 후각-향기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의 감각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2013)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헤이안시대를 중심으로-」 『일어일본학연구』 84호, pp.113-130
- _____(2015) 「일본 고대의 향도와 향문화-향의 문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5호, pp.117-134
-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3』 p.488
- _____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1』 p.211
- 河添房江(1994) 「最近の物語研究から-王権論から身体論へ」 「日本文学」 /河添(1998) 『性と文化の源氏物語』 筑摩書房, p.129
- 享楽真帆子 (2008) 「平安京貴族文化とにおい-芳香と悪臭の権力構造一」 (三田村雅子編 『薫りの源氏物語』 翰林書房, pp.68-85)
- 助川孝逸郎 (2008) 「<見えるかおり>/<匂うかをり>-薫の<香り>が表象するもの一」 (三田村雅子編 『薫りの源氏物語』 翰林書房, pp.150-172)
- 田中圭子(2008) 「紫上の薫物と伝承」 (三田村雅子編(2008) 『薫りの源氏物語』 翰林書房, p.135)
- 松尾聡 (199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 332
- 三田村雅子編(1997) 「濡れる身体の宇治-水の感覚・水の風景」 『源氏研究』 翰林書房, p.103

要 旨

It is possible to fi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incense indicated by "Genji".

First, incense women these Genji and Rokujoin is made for Akashi princess becomes a gift of the best celebration for after the ceremony, was supposed to go to the temple to become the Crown Princess princess.

Second, spring, summer, autumn, winter, four seasons of residence, when it was a case manufacturing incense to women that live in Rokujoin, in order to best match with yourself, smell each personality appears best I'm making. And select the scent combined in four seasons, that it is than had been manufactured, that it was a four seasons theme combined to match the fragrance on the season, it was the age that the world of peace dynasty had enjoyed a golden age my shows.

Third, Genji, scent purple on over, three of morning glory was making in common is more black. At that time, as has been rated as the best flavor, is a contemporary best wind flow people, through was educated person they black how manufacturing, than is was hoping to be evaluated their artistry and aesthetic eye .

In this way Murasaki Shikibu to produce the what incense, due to some kind that you have made a, and in the work the person who character, identity and the position of the characters in this work, in order to further shape the culture and intelligence of the person I have the means of.

キーワード : Incense, Heian period, Genjimonogatari, Scent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 제 확 정 일 : 2015. 7. 4